

1

언어 영역

공통

모두 2 점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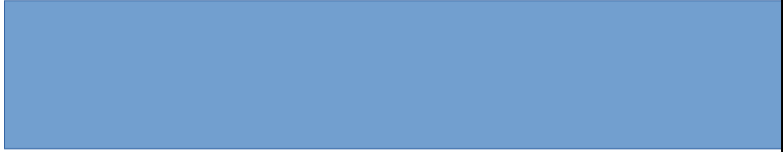
숲의 효용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한 논지 전개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숲은 연평균 기온을 낮춰준다. 숲이 습도를 낮추어준다. 숲은 연평균 기온을 낮춰준다. 숲이 습도를 낮추어준다.

Four empty boxes for marking answers.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낮은 밤에 숨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못 건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이 강물 어느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라.....

-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

(다) 어찌랴,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 프락에 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 나절의 저 음험한 비애의 어깨들, 오, 어찌랴,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혼자일 따름이로다. 프락엔 작은 나무 의자 하나, 깊이 젖고 있을 따름이로다. 전재산(???)이로다.

어찌랴, 그대도 들으시는가, 귀 기울이면 내 유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는 살아남아 울도다. 오, 어찌랴,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온 국토의 별판을 기일게 기일게 혼자서 건너가는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보일 따름이로다.

㉠ 어찌랴, 나는 없어라. 그리운 물. 설설설 끓이고 싶은 한 가마솥의 뜨거운 물. 우리네 아궁이에 지피어지던 어머니의 불, 그 잘 마른 삭정어들, 불의 살점들. 하나도 없이 오, 어찌랴, 또 다시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

[3 점]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김수영, '절망' -

- 오세영, '열매' -

- 정호승, '슬픔을 위하여' -

- 이동순, '물의 노래' -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삶이란 결국 이리저리한 욕망을 갖고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욕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나 견해가 존재한다. 되도록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반대로 욕망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만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 욕망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를 취하건, 욕망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의 하나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욕망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이나 능력이 없어서 충족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어떤 욕망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욕망을 갖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욕망을 갖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욕망을 통제하는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덕의 문제는 결국 좋은 욕망을 갖는 문제이고 또한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문제로 ㉡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욕망의 통제가 중요한 도덕적 과제가 된다.

욕망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지행합일설의 입장에서는 지와 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부정 행위를 한 학생도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다. 그는 부정 행위가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 행위를 성공시킬 수 있고, 부정 행위를 하면 점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 교육의 초점은 '올바로 알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 '안다'의 대상은 사실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규범이나 당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범적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스스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행위를 한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 행위를 한 학생들이 모두 '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에는 욕망에 의한 지행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욕망의 통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송순의 시조 -

- 이황, '권의지로서'에서 -

- 박인로, '누항사'에서 -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헝가레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후우 - 가슴을 쓸어내렸다.

"형, 우리 미술 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동 교사 뒷담을 넘어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먹은 다음 감쪽같이 들어오곤 했다. 재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필요 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투명스럽게 빨았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A)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형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써 지켜 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 선생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 온 그 숨은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더라는 것이다. 교정에 모여 선 아이들도 입에입에 형우의 얘기로 만발했다.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 본 걸 하룻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나는 웃어 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형우, 네가 구원해 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두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뺏 뺏이나 다름없어. 개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 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애길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 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단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의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냈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두 아니란 거야.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 은행에 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 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재수파들은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는 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형우가 손을 흔들고 자기 집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유능한 반장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쓸쓸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다.

〈중략〉

모 일간지 편집부국장을 지내는 학부형이 우리 반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반장이 그 학부형을 만나러 갔다. 그 신문사 기자가 학교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기표의 가혹한 효성에서부터 재수파들의 우정어린 피땀기와 급우들로부터 시작된 친구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되어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 있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의 콧등이 새삼 찡했다. 기사 맨 위에 담임 선생님과 반장, 그리고 기표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지시에 의해 그 기사는 각 교실 후편 게시판에 붙이게 돼 있었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부터 월요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사회 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위문 편지를 최기표에게 전달했다. 담임 선생님도 종례 때면 기표에게 편지 여러 장을 건네며,

"거기 여학생 편지도 많이 있으니깐 혼자 몰래 보라구."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기표가 얼굴을 벌겍게 달구며 편지 다발을 책상 속에 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던 것이다.

"기표 얘기가 영화로 된다면?"

"그렇대. 재수파들을 중심으로 한 애긴데 TV에 나오는 제3 교실 같은 거겠지."

7

언어 영역

공 통

어디서 나온 애긴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 전상국, '우상의 눈물' -



- 이색, '부벽루' -

공 통

언어 영역

* 천손 :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스르아느 나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무단한 회오리 바람이 환해* 중에 나리나니
 억만 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것네.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고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⑩)이 반이나 시들었네.
 오동 저문 날 비에 외기리기 우러엘 제
 관산 만리 길이 눈에 암암 밝히는 듯
 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스쳐 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 산전(??)에 석양이 거의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이 다했던고
 낙화 말이 없고 벽창(??)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 새들 어미를 그리누나!
 팔월 추풍(??)이 띠집을 거두니
 빈 길에 쌓인 알이 물불을 못 면하네.
 생리 사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 장(?) 백발이 일야(??)에 기도 길사
 풍파에 헌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벗들아!
 강천 지는 해에 배는 달이 없는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예퇴를 겨우 지나
 만 리 붕정(??)을 멀리곰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딪쳐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 가이 없고 어안(??)이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매화나 보내고져 역로(??)를 바라보니,
 옥량* 을 예 보던 낮빛인 듯
 양춘을 언제 불고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냇이 조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늘 위하여 적시는고.

- 조위, '만분가'에서 -

* 천층량 : 험한 물결. * 환해 : 관리의 사회. * 옥량 : 옥대들보.



흔히 문자는 말의 대용물이요 보조 수단이라고 한다. 문자가 말의 대용물이라는 근거 위에서 소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 즉 표음(??)에 충실할수록 좋은 문자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글자와 음소 사이에 1 대 1의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문자는 말의 대용물로서만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소리를 충실하게 나타낼수록 이상적인 문자가 되는 것일까?

문자가 말의 대용물이라는 생각은, 문자를 보면 우선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를 머리에 떠올리고 그 청각 영상에 의해서 **개념을** 파악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문자 생활의 비중이 큰 현대 사회에서 문자는 독립적으로 개념을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가령 '꽃잎'이란 글자를 보면 [꼐닙]이란 소리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고 직접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이나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 문자가 소리의 매개 없이 직접 개념과 통한다는 이야기다. 문자는 이렇듯 말의 대용물이 아니라 어엿하게 독자성을 갖추고 있는 직접 기호인 것이다. 결국 문자가 표음에 충실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문자로 하여금 직접 기호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길이라면, 문자는 표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말에서는 [흘기, 흥만]이라고 **발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흥만'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것은 실제 소리와 관계없이 일부러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태를 중시하여 표기하는 것은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연관성을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웃어라, 웃더라, 웃는다' 등에서 어간을 '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어간을 실제 소리에 따라 '웃-, 운-, 운-'으로 분화시켜 표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우리말과 같이 조사나 어미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 시각상의 통일을 위한 표기는 우리말의 특질상 거의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자는 표음에서 벗어나는 대신 시각상의 통일성이라는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우리의 현행 맞춤법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문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효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글의 음절 단위 표기 방식(소위 '모아 쓰기')도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효율성은 우선 글자 모양의 집중성에서 온다. 'ㅏㅑㅓㅕ'이나 'ㄱㅊㅋㅌ'과 **같이** 음소 단위로 풀어 쓰는 것보다는 '꽃'이나 '구름'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것이 시각적인 집중성을 높여 의미 해독을 쉽게 해 줄 수 있다. 더구나 모아 쓰기 방식은 동음이의어를 분별시켜 주는 일에도 기여한다. '반드시~반듯이', '이미 떠났다~임이 떠났다'와 같은 경우 풀어쓰기를 통해서 시각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모아 쓰기를 하면 구분이 가능해진다.

음소 문자는 문자 발달 과정으로 보면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언어가 가진 특질을 참작하여 적절하게 형태적인 고려를 취하는 것이 문자 표기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기도 하다.



이때 안평국 왕비가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어 보내고 회답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내전에 들어 왕비와 더불어 옥루에 올라 난간에 비기어 앉아 성의를 생각하시고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홀연 기러기가 중천에 높이 떠서 긴 소리로 아뢰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 왕비 앞에 앉거늘, 왕비가 기러기만 보아도 성의를 본 듯하여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기러기가 발에 한 통의 편지를 매고 왔는지라. 일희일비하여 급히 풀어 뜯어보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불효자 성의는 삼가 백배(??)하옵고 부왕 전하와 모비 माम께 올리나이다. 이별이 오래되었사온데 양 전하의 기후 강녕하심을 기러기 편으로 듣자오니 반갑고 설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사옵나이다. 연전에 모비의 병환을 위하여 슬하를 떠나 서역을 갈 때에 천신만고 끝에 십생구사(??)로 수만리 서천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돌아오던 도중 바다 가운데에서 포악한 변을 만나 뱃사람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전하였으나 두 눈을 잃고 한 조각 나무판에 태워져 푸른 파도 속으로 밀렸으니 십이 세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파도에 밀려서 지향없이 가옵더니 여러 날만에 겨우 한 섬에 다달았습니다. 짐작하니 언덕이어서 더듬어 보니 바위가 있기에 바위 위에 올라 정신을 수습하였더니 바람결에 대 우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더듬어 보니 과연 대밭이 있었습니다. ㉠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털고 앉아 오작에게 실과를 얻어 먹고 있었더니 천지신명이 도우사 중국 호승상이 남일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시는 길에 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핌을 입어 승상부에 머물게 되었던 일이며,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된 전후 사연과 호승상의 수양자된 말씀을 낱낱이 아뢰고, 공주와 더불어 고국으로 즉행하오니 또 중도에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양친은 살피옵소서."

하였더라. 왕비가 보기를 다함에,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왕비가 기러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 때 세자 향의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엿드려 여쭙기를,

"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하십니까?"

왕비가 향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향의가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성의의 필적이었다. 향의가 말하기를,

"서간을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나가시옵소서."

하더라.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 때 상이 향의에게 척교(??)하기를,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하셨다.

차설, 향의가 마음 속으로 헤아리되,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고. 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이날 향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

<중략>

적부리가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한 소녀가 말을 타고 진전에 횡행함이 제비 같은지라. 적부리가 분을 참지 못하여 달려들어 칠십여 차례가 되도록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었는데, 기러기가 또 날개에 모래를 묻혀 적부리의 얼굴에 뿌려 두 눈에 모래가 들어가 눈을 뜨지 못할 때에 공주의 칼이 번뜩하더니 적부리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 적진 중에서 적부리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장창을 들고 내달아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는 조그만 여자이다. 내 형을 죽이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하니 이는 부리의 아우 문이라. 오백 근 철퇴를 들고 달려들어 싸울 때에, 황성 장졸이 접응(??)하여 공주를 도우니 창검이 서리 같았다. 문이 더욱 분하여 서로 싸워 칠십여 합에 이르러도 서로 승부를 결정 짓지 못할 정도로 검술이 신묘하니 참으로 적수였다. 공주가 정신을

진정하여 무슨 경문을 외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오방신장(???)이 내려와 좌우로 적문을 치며 호령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라. 문이 항겁하여 도망하고자 하더니 문득 공주의 검광이 빛나며 문의 머리가 검광을 따라 떨어졌다. 공주가 칼을 들어 적부리의 군사를 치고자 하다가 문득 깨닫고 '적부리의 군사는 곧 부마국 백성이다' 하고 일제히 호령하여 세우고 큰 소리로 깨우쳐 돌려보내니, 군사들이 물러나와 공주의 은덕을 송덕하며 만세를 불렀다. 군사 한 사람이 아뢰기를,

"망발스런 모습이 되었사오니 소졸들이 전배(??)*함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공주가 허락하여 앞세우고 황성 일행은 뒤를 따라 일행과 인마를 거느리고 도성으로 들어가니 거리마다 송덕하며 만민이 모두 천만세를 부르며 남녀노소 없이 다투어 구경하더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 단저: 짧은피리.

* 전배(??): 벼슬이치가 행차할때나 상관을 뵈실때에 앞을 인도하는 일.



우리는 지금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예술, 여가 생활 등은 물론이고 사상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도 모두 상품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방식마저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리프킨(Jeremy Rifkin)은 과 '문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접속은 인터넷은 물론 전자 제품, 자동차, 주택 같은 다양한 실물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포괄적 추세이다. 접속은 이들 상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상대 개념은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산업 시대는 소유의 시대였다. 기업은 많은 상품을 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는 상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소유하여 자신의 존재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고객이 평생토록 자신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고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고 서비스나 다른 영역의 접속에 관한 권리를 팔면서 고객의 시간을 장악해 나간다. 우리의 삶이 상품 교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에 바탕을 둔 체제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접속의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다 서비스화될 수 있다.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돈을 매개로 매매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의 모든 인간 활동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계에서는 감정의 연대, 믿음 등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간 관계가 입회, 등록, 요금 등에 기반을 둔 계약 관계로 바뀐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이 순전한 상업적 관계로 얽혀 있다. 타인의 시간, 타인의 배려와 애정을 돈으로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상품화되고 공리와 영리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진다.

리프킨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사실은 우리 삶의 기저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문화는 늘 상업에 선행했다. 상업은 문화의 파생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 문화가 상업화를 위한 재료 공급원으로 전락했다. ㉠ 문화 자본주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문화적 다양성을 살살이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인간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문화 영역마저 상업 영역에 완전히 흡수당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기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결국 인간의 문명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리프킨은 지리적 공간에 뿌리를 둔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인간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 체험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잃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와 산업의 적절한 균형을 복원시키는 일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이다.

아래 가지곤 아무도 안 봐. 3 초야. 3 초. 3 초 동안 시선을 잡지 않으면 리모콘이 팍팍 돌아가는 거 알지?

에 두라구.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여기. 이 부분 좀 재밌게 ㉠바꿔. 알았어?

뭐가 마음대로야? 있는 사실을 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자는 거 뿐인데. 혹시 김작가, 내가 교양 프로만 하던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냐?

아닙니다.

김작가, 아니, 바로 말하지. 김다운씨, 김다운씨가 작가 출신 피디라고 조연출로 붙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구. 아마 국장 뺄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걸 어디까지 내 프로야. 알아?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마. 난 그런 거 못 봐줘. 알았어?

.....

바꿔. 내일까지. (황부장, 나간다. 김다운, 대본을 구겨준다. 그대로 서 있을 때 어디선가 서서히 아이들 동요 소리.)

너희들 말이 맞다.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놈에게 황국 정신이 뿔속까지 들어가도록 우리 후꾸오까 감옥의 매운 맛 좀 보여줘라.

예. (간수들, 운동주를 바로 세운다.)

물에 젖은 몽둥이로 뼈마디를 녹이고. (간수들 중 두 명이 물이 흐르는 몽둥이를 들고 번갈아 운동주를 내리친다. 그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운동주. 이에 간수 중 한 명이 수건으로 운동주의 입을 막는다. 계속 몽둥이가 춤을 춘다. 자지러지는 운동주.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간간이 신음 소리만. 이때 어디선가 나즈막히 허밍.)

칭칭 감는 채찍으로 살점을 떼어내고. (간수들 중 다른 두

명이 채찍을 휘두른다. 고통에 겨워 몸을 비트는 운동주.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나즈막한 노랫소리가 점점 커진다.)

매운 고추물로 내장이 뒤틀어지도록. (간수들 중 또 다른 두 명이 운동주를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물을 붓는다. 몸을 비트는 운동주. 물이 사방으로 튈다. 나즈막한 노랫소리가 점점 비통한 목소리로 커지기 시작한다.)

손톱 발톱 뽑아내어 신경 끝까지 고통이 배도록. (간수 2, 기구를 들고 운동주의 손톱과 발톱을 뽑는다. 몸을 부르르 떠는 운동주. 무대가 핏빛으로 물든다. 허밍이 비통한 노래로 바뀐다.)

(간수들, 운동주를 바닥에 내던진다. 운동주,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는다. 합창소리 끝날 즈음 김다운 등장한다. 김다운, 높은 곳에서 아래쪽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는 운동주를 바라본다. 황부장, 김다운의 옆으로 다가온다.)

김작가, 수고했어. 김작가는 확실히 재능이 있어.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알아듣거든. 사이포라는 가공의 인물을 생각해낸 거 아주 멋진 아이디어야. 그 바람에 운동주의 옥중 장면이 살았다구. 아주 극적이고 말야.

.....

[1 점]

교통 체증으로 우리가 입는 손실은 막대하다. 연료의 소모, 시간 허비와 같은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배기 가스로 인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도로를 확충하여 도로율을 높이고 차량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공학자들은 첨단 교통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도로·차량 신호 등의 기존 교통 체계에 전자·정보 통신·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도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최적의 교통 흐름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1997년 물리학자 케르너는 교통의 흐름을 3 단계로 구분한 '단계 전환'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교통 흐름을 '원활한 소통' 단계, 차량 진행이 늦어지면서 나란히 가는 '동기화 소통' 단계, 그리고 차량 흐름이 멈추는 '정체' 단계로 구분했다. 원활한 소통 단계에서는 차량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속도를 높이며 차선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 상태는 입자들이 임의대로 움직이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밀도가 낮은 기체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 러시아워 때는 교통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차량 평균 속도가 줄어든다. 이는 액체의 상태와 유사하다. 이 상태에서 차량이 더 늘어나 밀도가 더 증가하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고체 덩어리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교통 정체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액체가 기체, 고체로 바뀌는 것과 같은 '상전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 교통의 흐름이 물질의 상전이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정체를 막을 수 있는 법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물리학적 방법으로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밀도, 온도, 기압 등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물질의 질적인 상태가 전환되는 상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물질의 상전이 현상을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 평균 속도, 신호 체계 등의 요소들과 비교해 보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임계치를 찾아낼 수 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차량 수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 그 때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이다. 이런 방식으로 교통 체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화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임계치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 지역의 도로망을 구성한 뒤 일정한 차량을 배치해 실험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평균 속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임계치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즉 도로에 지능을 부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차량의 흐름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켜 전환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적화 모델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공 통

언어 영역

16



중의 하나이다. 19세기까지 대표적인 예술론이 되어 왔던 모방론과 표현론은 모든 형태의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각기 모방과 표현을 들고 있다. 이 이론들이 가정하고 있는 바는 모든 예술에 공통적인 본질이 존재해야 예술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부터 이러한 본질주의적 시각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디키(G. Dickie)는 이러한 본질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예술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의미라고 말한다. 예술 작품의 분류적 의미란 '예술 작품'이라는 말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어떤 사물이 예술 작품들의 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에는 당연히 아름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술'을 평가적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하지만 현대의 예술 작품들 중에는 눈으로 보아서는 예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 작품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분류적 의미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디키의 정의는 현대의 다양한 예술 현상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예술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의미가 있다.

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으로 디키는 모든 예술 작품은 인공적인 사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분류적 의미에서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이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그 대상이 인공품들 중의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키의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디키가 말하는 '인공성'이란 기존의 인공품이나 자연물을 물리적인 힘으로 가공하지 않고도 예술가에 의해 예술로서 취급되어 미술 전시회라는 새로운 맥락 안에 놓이면 인공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것인데, 여기서 제도적 존재란 어떤 제도에 의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여된 자격이나 지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술계는 음악, 문학, 조각, 연극, 회화 등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체계에 속하는 대상들에게 예술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고유의 제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예술계에 의해 감상 후보로서의 자격이 수여되어야 비로소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예술이건 나쁜 예술이건 관계없이 가치 중립적이고 분류적인 의미에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 정의하고자 했던 디키는 실제의 감상이 아니라 감상의 '후보'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예술 작품의 필요 조건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